

당당함 갖춘 白樂晴 비평의 새 단계

두 소장평론가가 말하는 「민족문학의 새 단계」

김태현 (문학평론가 · 本誌 서평위원)
김명인 (문학평론가)

김태현 — 최근 백낙청교수(서울대·영문학)가 4번째 저서로 「민족문학의 새 단계」(창작과비평사)를 상재, 학계와 문단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평론집의 출간을 통해 백교수가 근래에 들어서도 상당히 왕성한 비평활동을 해왔음을 입증하면서 한국문학에 끼친 백교수의 영향력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백교수의 문학비평이 젊은 비평가뿐만 아니라 한국문단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자리를 굳혀 갔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교수의 비평은 주도비평가란 호칭에 어울리게 적극적으로 문단에 활기를 불어 일으키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토론의 활성화에는 가히 독보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와 유사한 세대의 비평가들이 비교적 토론이나 쟁점이 될만한 사항을 비평에서 취급하기보다 조용히 작품론이나 작가론에 몰두한 것과 좋은 대비가 되는 셈이죠.

또한, 백교수는 편집인으로서 「창작과 비평」이라는 매체를 통해 활발히 활동해왔다는 점, 영문과 교수로서 영문학교육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 변혁운동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지식인으로서 계몽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의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점 등으로 백교수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명인 — 백교수는 몇년전 어떤 자리에서 그 자신 70년대 비평가로서가 아니라 80년대의 비평가로, 더 나아가 90년대의 비평가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허세이거나 과욕이 아닌가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채광석·이재현·현준만·김도연 씨 등에 의한 '민중문학론'의 공세에 백교수가 이론적으로 물리던 시기였고, 그의 세번째 평론집인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I」에서도 젊은 비평가들의 도전에 대한 다분히 수세적인 자세가 더 많이 엿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즈음은 새로운 민족문학의 성과로서 노동자작가그룹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판단을

놓고 비교적 방어적이고 문학주의적인 입장을 되풀이 하는, '70년대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론집을 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백교수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978)에서 보여주었던 당당함과 오연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80년대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이 여전히 드러나 있지만 자신의 정리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실지'를 회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평론집에서 백교수가 표현한 바처럼 '청년적 조급성과 소시민적 불철저성'을 벗지 못한 젊은 비평가들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백낙청이라는 큰 봉우리를 남김없이 넘어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앞섭니다.

백낙청 비평의 '열린 특성'

김태현 — 백교수의 논리를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펼쳤던 김명인씨로서는 백교수의 비평세계를 '뛰어넘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뛰어넘기보다 백교수의 비평세계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했던 문학도였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보자면, 이 책이 '실지'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영역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교수의 이번 평론집을 살펴보면 지혜나 진리라는 용어를 통해 상당히 깊은 속뜻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무척 인상적입니다. 때로는 백교수의 그러한 속뜻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같은 발언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백교수가 종래의 당당함과 오연함을 다시 과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양상을 띠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백교수가 첫 평론집을 상재할 때의 주된 관심은 '민중문학론'의 제창이었고, 그리고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1979)에서는 민족문학론의 논리적 공백을 보완하는 단계로 진전합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80년대 초엽의 활동을 정리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I」가 선보였습니다. 그 책을 김명인씨는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쳤다고 평가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백교수가 자신의 '민중문학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논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번 평론집을 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백교수가 과거의 당당함과 오연함을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80년대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이 여전히 드러나 있지만 자신의 정리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실지'를 회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김명인씨

일에 주력하고 젊은 비평가들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에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평론집은 여전히 기존의 논리를 강화하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일부의 비판적인 견해들을 나름대로 수용하면서 자기변신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비평가들의 반론에 대해 소신껏 응대해 가면서 새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로 '새로운 단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과 노동문학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 평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했다는 점,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수용하면서 그것들을 자신의 분단모순론 속에 용해하여 소화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지적처럼 이 평론집은 기존의 견해를 강화하면서도 수정, 발전시키고자 하는 백교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이 90년대 비평가로서도 여전히 활약하겠다는 백교수의 창조적 '욕심'이 강하게 투영된, 따라서 앞으로의 활동을 크게 기대해도 좋을만한 역작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인 — 구모룡씨의 지적처럼 백교수의 비평은 '열린 특성'을 갖고 있어 끊임없는 자기변신이 가능하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주의'라고 제가 다른 자리에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 백교수 비평의 미덕은,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언급을 게을리하지 않는 너털함과 포용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미덕이 백교수 비평을 비판하고자 하는 논객들에게 많은 어려

움을 안겨주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지금 지적하신 포용력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교수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문학의 변증법적 특성인데, 이처럼 문학에 거는 기대가 대단하다는 점에서 그런 포용력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교수는 이 평론집의 한 논문에서 "작품의 '진리'는 과학의 '진리'와 다를 뿐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의 변증법적 특성이야말로 매우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타의 학문이 그와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비평의 부재가 아쉬워

김명인 — 이번 평론집에는 80년대 중후반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진 '민중문학논쟁'에 대한 백교수의 견해표명이 실려 있고, 사회구성체논쟁에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분단모순론이 집중적으로 피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교수 스스로 "비평가의 가장 책임 있는 발언은 '이론비평'과 '실제비평'의 확연한 구별이 안먹히는 비평행위를 통해 성립하며 그 과정에서야 발언의 엄밀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라 말하고 있긴 하지만, 정통적인 비평으로서의 작가·작품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있는 비평에 대한 소신이 확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별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총체적 접근, 그리고 사상적 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만 민중성과 예술성이 어떻게 한 작품에 통일되어 있는지, 혹은 괴리되었는지가 옳은지 드러나는 것임에



“백교수는 줄곧 계급모순의 해결보다 민족모순의 선결적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백교수가 전적으로 노동자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민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씨

도 불구하고 백교수의 비평에는 그러한 실제비평이 부재하고, 단지 전체적인 이론들 속에서 그 입장개진에 필요한 작품만을 인용하거나 필요한 부분에서만 작품을 조명하는 편의주의적 비평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저도 다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만 백교수도 이 책의 서문에서 스스로 본격적인 작품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명인씨가 인용한 백교수의 발언은 그간 이론 비평에만 치중했다는 주위의 비판에 대한 일종의 설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이 책의 3부에서 다소 길게 해석되고 있는 작가는, 송기숙·고은·김수영·신동엽 등이 있고, 제1부에 수록된 「민족문학의 새 단계」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짧게 인용되고 있는 작가는, 고은영·황석영·윤정모·박완서·김지하·김향숙·박노해·안재성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다수의 작가가 예전부터 백교수가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고 보면 80년대 이후 등장한 작가에 대해서는 백교수가 그다지 눈독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박노해와 안재성도 애정 못지않게 비판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점을 더욱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이를 통해 백교수가 애정을 갖고 있는 작가나 작품의 층이 매우 얇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명인 — 백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민족문학론의 요체는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과 ‘각성된 노동자의 눈’의 교직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각성된 노동자의 눈’이란 민중구성체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일컫는 것인데, 단 그것은 편협한 계급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민족모순을 전면적으로 떠안는 노동자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는 그러한 ‘잣대’가 실제작품에 대한 비평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안재성의 「과업」이나 박노해의 시들이 각성된 노동자의 눈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어쨌든 노동문학작품이므로 백교수의 잣대가 가늠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는 작품들에 있어 과연 ‘각성된 노동자의 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데 있어 백교수의 비평 역시 다른 비평가들이 ‘당파성’의 잣대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향숙의 소설이 백교수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때의 김향숙 소설이 과연 민중적인 입장과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잘 아우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점에선 객관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같은 난제는 백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평을 업으로 삼는 이들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백교수가 내놓곤 하는 ‘사실주의적 기술’ 등의 비평기준은 본질적인 문제를 전통적인 리얼리즘비평으로 희석시키는 ‘변죽때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김태현 — 백교수는 줄곧 계급모순의 해결보다 민족모순의 선결적인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기에 그런 비평태도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백교수가 전적으로 노동자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민중이

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인 — 그런데 바로 그러한 논조가 백교수의 비평을 소시민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백교수는 이러한 비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만 분단된 한국사회에서의 노동자 당파성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에 백교수의 비평논리가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현 —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 그 문제를 깊게 탐구한 글이 나올 듯 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나름대로 예상해 보면, 그것은 분단모순에 대한 애착으로 계급모순을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중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각성된 노동자의 눈’의 위상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평론집에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분단문제에 대한 천착입니다.

김명인 — 분단모순을 주요모순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모순인 계급모순에 대한 원칙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주요모순으로서의 분단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급모순이 어떻게 수렴되어 해결될 수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라는 글에서 나타나듯이 백교수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이나 문학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지혜’라는 낯선 개념을 사용하여 독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백교수가 말한 지혜란 과학보다 한 수 위인 문학이 당도할 수 있는 최고치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과학적 세계관이 곧 지혜라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과 지혜의 대비는 무리라고 생각되고, 더 나아가 지혜와 과학을 분리시킴으로써 그동안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 포괄되었던 깊은 내포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백교수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문학을 통해 ‘운동’하고자 하는 넓은 의미의 활동가로서 내적인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백교수 나름의 노력의 반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논리적 설득력이 약해 석연치 못하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외국문학의 주체적 수용 강조

김태현 — 문학의 무궁한 잠재력에 대한 백교수의 깊은 신뢰가 그런 표현을 가능케 했다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또한, 변혁운동

의 전개과정에서 일어났던 내부분열이나 얇고 성급한 논리나 실천력의 미약함 등 부정적 요소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책의 후반부에 실린 외국문학학자로서의 백교수가 성취한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누구나 읽어서 감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글들은 쉽고도 명쾌하게 ‘왜 외국문학을 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민족문학론의 입장에서 외국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학을 풍요롭게 하고 더불어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고 변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명인 — 백교수가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주체적 수용을 통한 외국문학의 민족문학으로의 수렴은 異論이 없을 정도로 우리 문학의 대단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다른 계열의 외국문학자들이 바슬라르나 푸코 등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이론을 대중화시킨 것에 비해, 백교수는 그러한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진보적인 외국이론가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문단에 횡행하는 구조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이론을 상쇄할 수 있는 작업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현 — 백교수 본인도 번역의 중요성을 줄곧 주장해오셨었습니다만 진보적 외국학자의 소개나 그들의 주요저작을 번역하는 일에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량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어차피 그런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백교수가 맡고 있는 ‘창작과비평사’를 통해 소장학자들이 그 일을 대신 떠맡고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은 순전히 백교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백교수가 지속적으로 외국문학을 주체적으로 읽으면서 민족문학의 논리로 소화하고자 노력했고 왜, 어떻게 외국문학을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나름의 답을 제시했다는 점 등을 봐서라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책의 4부에 개진된 학문의 본원적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학문종사자들에게 매우 값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에 들어 보다 활기를 띤 백낙청비평의 아름다운 진행을 고대하면서 이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